

# 북한개발소식 04

2021 April | 통권 186호

| 이달의 주제 |

북한의 다음세대와 선교



# 북한의 다음세대와 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1 April

이달의 주제 :

북한의 다음세대와 선교



권두칼럼	01	북한의 다음세대와 선교
칼럼_1	09	북한 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칼럼_2	15	신호숙_ 북한의 다음 세대
칼럼_3	21	임창호_ 북한의 다음세대, 탈북청소년들도 그들 중 하나이다.
탈북민 수기	27	편집부_ 차갑게 얼었던 나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였던 그 찬양(상)
북한 뉴스	32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외
서평	36	오래된 소원
북한 기도 제목	40	북한의 다음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말이 있다. 당장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변화하기 마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이 그러한 존재일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도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고, 통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 시스템도 굳건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 불어온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익히 들어왔다. 그리고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이들이 장성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대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북한의 청소년들이 나름의 변화를 겪으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문화를 공유하며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의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의 복음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오늘 이 글에서는 북한의 다음세대 전반에 대해, 특별히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장마당과 북한 사회, 그리고 새로운 세대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경제의 성장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생활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국가로부터의 충분한 배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사나 관련된 별이를 통해 스스로 생존하게 되었다. 먹고사는 문제의 근본이 바뀐 만큼 북한 사회에 전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났다. 기성세대도 이러한 변화의 여파를 경험했지만 그 영향은 기근 이전의 경험과 기억이 없는 새로운 세대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고, 세대 전반의 문화나 사고방식이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들을 통해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특별히 주민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 모습 (동아일보)〉

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층 뿐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경제 관념의 변화와 이에 따른 남녀관계, 가족, 신분 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었다. 이용희는 2010년 이후 탈북한 20-35세 탈북민 20명에 대한 심층면접과 탈북자 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비교하여 시장화가 주민 가치관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sup>1</sup>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가치관의 변화가 유사한 방향으

로 진행되었다. 즉 시장화에 따라 성분과 신분보다도 돈과 경제력을 중요시하게 되고, 여성이 주축이 되는 북한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 결혼의 개념도 변화하였다. 전 세대에 걸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 변화 속에서 특히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채경희는 2017년 기준 5년 이내 탈북자를 대상으로 9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와 장년층 기성세대 각각 98명과 102명을 대조하여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다.<sup>2</sup> 연구 결과 기성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젊은 세대는 정치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경제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높았다. 특히 교육의식과 준법의식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교육의 붕괴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교육 정책이나 실태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의식도 약했다. 다만 그에 비해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은 기성세대와 차이가 존재했지만 상대적으로 확연하지는 않았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출생한 당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탈북자 40여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sup>3</sup> 해당 연구에서 정리한 북한의 다음 세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새로운 세대는 물질과 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표출하고 표현한다. 즉 과거 평등을 부르짖던 공산주의의 세계가 아닌 소유 정도가 한 눈에 파악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계층 차이를 몸과 마음속 깊이 경험한 세대이다. 둘째, 새로운 세대는 비정치적이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구호나 정치적 사건에는 별 관심이 없다. 자신들의 생계는 더 이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돈의 위력과 또래간의 문화와 질서가 국가와 가정의 규율을 대체한다. 셋째, 새로운 세대는 외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세대이다. 외부의 상품과 문화매체를 통해 외부세계를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환상과 동경, 또는 모방이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장마당 이후 북한 사회는 경제관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현실적인 가치관이 주민들 전반에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에 출생한 세대는 이념에 대한 개념은 약화된 반면 경제관념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새로운 계급, 또래 문화에 적응한 현실적인 세대였다. 돈에 의한 계층화에 익숙하고, 비정치적

이며,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모방의 문화를 어색해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남한의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 경향은 유사해 보인다. 이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장마당 이후 북한사회가 남한 사회의 모습과 유사하게 변화함으로써 남과 북의 차이가 완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sup>4</sup>

### 북한 당국의 대응과 사상 교양의 변화

작년 5월 노동신문에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축지법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사실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땅을 주름잡아다닐수는 없는 것”이며 축지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인민들이 일제의 토벌대 정보를 우리 사령부에 알려 주어 토벌대를 매복, 위장 전술로 대응한 것을 표현하는, 인민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축지법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대중의 축지법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5</sup> 북한 당국이 그간 지도자 신격화에 열을 올렸던 것을 생각하면 위 사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쟁 시절 모래로 쌀을,

1 이용희 (2020). 북한 시장화가 주민 가치관 변화에 미친 영향. 통일전략, 20(1), 33-74.

2 채경희 (2019).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 pp 313-322.

3 조정아 외 (2013).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 경험과 특성.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3-08.

4 이용희 (2020), 앞의 글

5 北 “축지법, 사실은 불가능”...김일성·김정일 신비화 부정 주목, 아시아경제, 2020.05.20. <<https://cm.asiae.co.kr/article/2020052008185076980>> (검색일: 21.03.25)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었으며 축지법을 쓰는가 하면 가랑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넜다는 내용을 주민 교육용 교재나 교과서에 수록하기도 했고 1996년에는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는 제목의 선전가요를 제작해 유포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톤의 차이는 북한 사회의 변화, 특히 새로운 사고방식의 젊은 세대들에 맞는 대응을 고심하는 북한의 현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운 세대의 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정권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현 통치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념이 약화되고 비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는 새로운 세대에 대응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는 젊은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교양의 내용도 젊은 세대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개선했다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에서는 삶의 방향을 규정하는 가치관 또는 도덕을 교육하는 것을 '교양'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즉 우리가 흔히 북한의 사상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교양'이라고 지칭한다. 북한이 각 시대별로 강조한 사상 교양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현 김정은 정권은 5대 교양(위대성 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세계 급교양, 도덕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김지수, 한승대는 김정은 시대의 사상교양을 과거와 비교한 김정은 시대 교양 활동을 실용적, 현실적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한다.<sup>6</sup> 먼저 5대 교양에서 가장 핵심이며 지도자의 위대성을 다루는 '위대성 교양'의 내용이 변화했다. 기존에는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선조들의 사상과 업적을 공유하고 그에 맞게 살자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수령과 지도자에 대한 신비화 대신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었다. 헌법에서 김일성에 대한 수사어였던 '민족의 태양'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과거 김정일 정권의 교양 중 핵심 내용이었었던 선군사상도 삭제된 것은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다른 5대 교양 항목들도 추상적인 선언이나 형식주의보다는 실제 생활에 기초한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사상 교양의 골자는 계승하지만 현실체제에 부합하는 내용,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교양, 그리고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국가 발전,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권 초기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혁명전통 교양과 당 정책 교양은 5대 교양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북

6 김지수, 한승대 (2020). "북한에서 사상교양의 변천과 '5대교양'의 등장 배경 및 의미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30(4), pp. 65-88.



〈2016년 열린 제 9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회' 참가자들이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하고 있다 (AP통신)〉

한은 과거의 전통보다도 '실용적인 교양'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 변화 외에도 미래 세대에 대한 교양활동 강조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고난의 행군 이후 무너진 교육시스템 정상화에 힘썼다. 금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선생님이 직접 학생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문수업 등을 도입하는 등 교육시스템 유지에 애쓰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5대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학교 밖 조직생활에서도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인 2012년에 열린 소년단 창립 66돌을 맞아 직접 축하연설을 하였는데 최고지도자가 소년단 행사에 참석한 것은 94년 이후 18년 만이었다. 또한 2016년에는 23년만에 청년동맹 제 9차 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 김정은도 참석해 청년 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동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 비중 교성을 경계하라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북한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당국도 신경쓰고 있는, 변화된 사고방식의 신세대를 우리 역시 주목하게 된다. 먼저는 선교의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향후 통일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를 이끌어갈 세대로서 이들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물리적 장벽으로 인한 접근의 한계로 북한 복음화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은 통일 이후로 미뤄진 상태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교회와 단체들이 통일이 되고 물리적 장벽이 제거된다면 이러저러한 사역을 할 수 있고 많은 북한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망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진 신자라면 당연히 품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난관과 문제를 마주할 각오와 준비도 필요하다.

동독 주민들, 동독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통일 이후 독일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마주할 북한 사회의 상황과 사역적 어려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 구 동독지역의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통일과 공산주의 붕괴 이후 동독 지역에서는 독일 교회가 기대했던 기독교 신앙의 회복 대신 무종교/비종교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sup>7</sup> 통일 이후 20여년이 지난 2010여년도를 기준으로 독일의 각 주별 기독교인 비율을 조사한 결과 동독의 4개 주가 가장 개신교인 비중이 낮고(20% 이하) 무종교인 비중(60-80%)이 높았다. 나머지 동독 지역들도 기독교인 비율이 서독지역에 비해 낮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비종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일의 종교교육 현황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독일의 경우 국교가 루터교로서 독일 16개 주 중 12개 주가 종교교육이 공립학교의 정식과목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동독 학생들은 종교 수업 대신 대체수업인 윤리교육을 수강하고 있었으며 학교도 종교교육을 이끌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이한 점은 이들의 비종교성이 타 유럽 지역의 신흥종교, 유사종교로의 대치가 아닌 종교 자체에 무관심한 종교적 문맹 상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독일 개신교계는 통일이 되면 동독 지역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인권을 탄압받던 사람들이 복음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리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기대였다. 40년간의 사회주의 경험은 예상보다 더 심한 비종교적 성향을 낳았다. 종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한 이들,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자체에 무관심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은 교회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다.

북한은 어떨까? 주체사상이 개신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고 종교적 교리와 유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본에는 철저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극도로 배척하는 사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비정치적이고 이해타산에 밝은 현실적인 북한의 젊은 세대의 경향은 물질주의, 세속주의와 더 맞닿아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구 동독의 사례는 통일 후 북한에 대한 접근이, 특히 다음세대에 대한 접근이 이들이 철저히 기독교에 낯선 상황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현실에서 만나는 복음 - 복음의 실천과 북한선교

북한 사회의 변화는 새삼스러운 주제는 아니다. 오래 전부터 북한으로의 외부 사조 유입이나 시장의 발달이 각 개인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상기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사회의 근본적

변화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야기되어 왔으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와 미디어가 전파되고 새로운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앞선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넘어 복음의 메시지를 마주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변화는 북한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차지하고 주체사상과 수령중심주의의 약화 및 회의감 증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에 빠르며, 소유에 민감하고, 무신론/유물론적 사고가 익숙하며, 종교라는 개념 자체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이들에게 기독교나 복음은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해하기 어렵고 낯선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또 자칫하면 사역 간에 신앙의 의미가 왜곡되고 세속적인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살펴본 북한의 다음세대의 특징과 그간의 탈북자 선교를 돌이켜 볼 때, 이 글에서는 북한 다음세대와 한반도 복음화의 키워드로 “실천”이라는 단어를 제안한다. 새로운 세대는 추상적인 미사여구나 비현실적인 개념에 무관심하다. 북한 당국도 이

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근래의 사상교양에서 수령을 신비화하는 전통적인 접근법 대신 실제적인 경제발전, 국가발전을 위한 단합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 전도 역시 실천을 통해 현실세계에 복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가 구현될 때 그들에게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간 북한 선교 현장에서 만난 탈북자들에게서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탈북 당시 이들은 대체로 기독교에 대해, 성경과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 낯설어 할 뿐 아니라 강한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제시하는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 교회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 속에서 그들은 성경과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진리를 마주하며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일이 많았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과 사랑이 이들에게 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복음을 맞닥뜨린 것이다.

이러한 탈북자 선교의 경험에서 미뤄볼 때 종교에 대한 개념이나 관심이 적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살아온 북한의 다음세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 전도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중요한 진정한 가치를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감히 제시해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보상과 기대 없는 섬김 속에 열매를 맺어 온 선교


7 고원석 (2020). “구(舊) 동독 종교교육의 변화와 과제, 그리고 시사점”, 신학과 실천, 71, pp 399-427.

현장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복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효율이나 효과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통일 이후가 아닌 지금이 순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탈북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남한까지 성공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도 다수 존재한다. 당장 남한에 와 보니 연고도 없고 사회적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자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일하게 되고, 그렇게 삶의 무게에 쫓기다보니 신앙생활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만다. 또 적응의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선교 사님과의 신앙 생활을 기억하며 배정받은 집 인근의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낯설고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 나만 홀로 외부인인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며 적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이들도 있다. 몇몇 열심 있는 곳을 제외하면 탈북민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케어에 서툴렀던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이 되면 각 교회들이 훌륭하게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기 앞서 지금 이 순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땅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각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나야 한다.

## 결론

북한 사회가 현실적, 비종교적, 물질주의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한 사회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 남한의 교회는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복잡하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장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북한의 영혼들과 통일을 품어가는 것이다. 바로 지금 동포를 품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에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이야말로 다음세대를 위하고 통일한국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믿는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일꾼이 되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 북한 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

2012년 9월 북한에서는 김정은 등극 후 첫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다. 같은 달 25일에 그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김정은 등극 후 첫 최고인민회의의 ‘중대발표’인 만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당일 발표된 내용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교육개혁에 대한 것이었다. 경제문제 혹은 핵문제에 대한 발표를 예상하던 언론과 학계의 기대는 빗나갔으나 이를 통해 남한사회는 북한도 남한 못지않게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새삼 깨닫는 계기였다.

교육문제는 각국 정부가 중대한 역량을 쏟는 분야이며 국민의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에 왜곡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이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북한의 다음세대를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그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교육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이다. 교사출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교사들의 책임감과 노력에 있어서는 남한의 교사들에 뒤지지 않는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에서도 교과서를 개정하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정권차원에서도 교육을 위해 국가의 중대한 역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위하여 쓰는 글이므로 북한교육의 중요한 특징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에 집중하여 소개할 것이다.

## 1. 이상화와 역사왜곡

북한 교육에 있어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것은 이상화이다. 북한교과서에 나타난 지도자가문의 이상화는 김정은 등극 이후 다소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북한은 2013년 교육과정 전면 개편 시 유치원교육과정부문 기존에 있던 주요 과목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과 “친애하





〈2013년 5월부터 2015년 10월에 걸쳐 발행된 북한 교과서 (아시아프레스)〉

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시절” 과목을 폐지하고 1교과 통합교과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에 국한된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교과서에 글로 쓰여 있던 우상화의 빈 공간을 자발적 찬양으로 매워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당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탈북민의 2019년에 증언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교육현장에서 과거에 비해 김일성, 김정숙과 관련한 내용은 줄었지만 김정일, 김정은 관련 사상교양은 오히려 강도가 세졌다고 증언한다.<sup>1</sup>

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소학교 교과서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2학년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경우 겉표지가 2013년 교과서 개정 이전까지는 한국전쟁시기 노동

당을 위해 헌신하는 어린이들의 삽화가 표지를 장식한 반면 2013년 개정교과서에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교과서의 내용도 100쪽에서 177쪽으로 늘어나고 속담, 우화 등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풍성해졌다. 교과서에 소개된 예문의 질도 더욱 복잡한 맥락을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고 그에 따른 질문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정교과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2013년 개정 교과서에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급횟수가 현격히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학계의 분석결과 우상화 교육의 정도에 있어서는 2013년 이전과 이후 교과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전 교과서는 교과서 서술 방식에 있어 다소 억지스럽게라

도 모든 부분에 최대한 김일성, 김정일의 이야기를 넣으려 하는 방식의 서술이었으나 2013년 개정교과서에서는 도입부에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제시하고 결말부에 ‘과외읽기’ 코너에 그들에 대한 예화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교과서의 양적 분석결과 개인-사회 도덕규범내용은 63%에서 57%로 감소한 반면 지도자숭배 조국애(한국, 미국에 대한 중요 내용이 주를 이룸)내용은 27%에서 39%로 증가하였다.<sup>2</sup> 소학교의 교과목 수업시수를 보아도 사회주의 도덕,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어린 시절 과목이 각각 매주 1시수씩 배정되고 있다. 이는 우상화과목이 매주 4시수씩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급중학교(남한의 중학교에 해당)와 고급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도 매주 4-6시수의 우상화 과목수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어린이에 대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역사교육연구를 집대성하여 남한 학계에서 펴낸 책으로 『북한의 역사교육』이 있다. 이 책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역사교육은 진실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은 김일성 혈통의 지배를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곳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혈통의 계승자가

역사의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중등학교 역사교육은 이러한 양상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근현대사학자 김도형은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역사적 판타지 서적으로 평가한다.<sup>3</sup> 북한이 우리민족의 근현대사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사건은 제너럴셔먼호 사건인데 그 이유는 주민들에게 반미사상을 고취함과 동시에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를 영웅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김응우가 제너럴셔먼호와 관련되어 어떠한 역사적 관련성도 규명되지 않은 인물임에도 북한의 교과서에서 그는 제너럴셔먼호 사건 당시 미국을 물리친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3.1운동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도 김일성의 열정적 활동을 묘사하고 있으나, 당시 8세에 불과했던 김일성의 활동을 우상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김일성 부모의 영웅담을 부각한다. 그러나 결국 3.1운동의 실패원인도 김일성과 같은 지도자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3.1운동마저 김일성의 위대함을 선전하는데 사용한다.

북한의 역사책은 사료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과 역사적 해석을 사실로 서술하면서 그 가계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반침략투쟁혁명사’를 서술한다. 김일성 가계가 부각되려면 그 이외의 인물은 폄하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3.1운동, 헤이그 밀사파견은 의도는 좋으나 어리석은 일로 폄하되고 있으며,

1 김희정, 김지수, “2013 개정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 및 실행분석,” 2020, 유아교육연구, 40권, p.75

2 김병연,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 분석, 윤리교육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55집, 2020, pp.376-380

3 정영순 외, “북한의 역사교육,”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p53.

같은 이유로 안중근, 이준은 옳지 못한 무모한 투쟁의 길을 걸은 인물로, 신채호도 한계를 지닌 인물로 폄하된다.<sup>4</sup>

## 2. 증오교육

북한의 도덕 교과서를 영역별로 구분하자면 개인 도덕규범, 사회도덕규범, 조국애, 지도자숭배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소학교 2학년 교과서의 경우 조국애 부분의 절반을 원수에 대한 증오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교과서 2학년 도덕교과서 총 8개 단원 중 6단원의 제목은 “증오는 원수에게”이며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놈들 2)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 3)언제나 불타는 증오심을 지니고 이다.<sup>5</sup>

유치원 교재에는 “지주, 자본가는 나쁜 놈”이라는 주제별 활동이 있다. 이 활동은 교과서에 실린 “옥쟁이 지주놈”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교양영역의 목표로는 “지주놈들의 착취적 본성을 알도록 교양함”을 우리말교육영역에서는 “지주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말해보는” 목표를, 정서교양에서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움”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며 체육활동으로는 “지주놈은 나쁜놈”이라는 노래에 맞추어 율동하는 체

육활동이 추가된다.

북한의 증오교육은 북한당국이 어린이와 교사들을 위해 출판하는 잡지 『아동문학』에 수록된 동화와 동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마성은에 의해 소개된 2013년 아동문학의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면 남한 대통령에 대한 매우 높은 수위욕설과 잔인한 내용들로 가득찬 동시와 동화들이 수록되어있다.<sup>6</sup>

소개된 내용을 보면 너무 적나라한 욕설과 잔인한 내용으로 가득 차있어 도저히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들로 볼 수 없다. 성인들도 보기 불편할 욕설과 잔인한 내용들이 어린이들의 증오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교육이 단지 사회주의 도덕, 김일성, 김정일 과목만이 아닌 여타 과목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어교과서에도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매우 잔인한 내용의 삽화들이 삽입되어있는데 이는 북한의 증오교육이 과목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sup>7</sup>

## 3. 열악한 교육환경과 물자상납의 부담

북한은 전 학년 무상교육에대해 자랑스럽

게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허울뿐인 무상교육이다. 북한의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위 “꼬마 계획 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은 각종 상납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필자는 한 탈북자의 에게 북한에서 가을만 되면 학교에 가기 싫었

던 회고를 들은적이 있다. 학교를 가기 싫은 이유는 매년 가을 학교에 토끼 가죽을 바쳐야 하는데 돈이 없어 바치지 못하고 이는 체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었던 것이다. 실제로 북한 학교의 각종 상납요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다. 토끼가죽으로부터 비롯하여 구리, 파철, 파유리에 이르기까지 정해주는 할당량을 모으지 못하는 학생들은 정신적 육체적 체벌을 당하게 된다. 문제는 버려진 구리, 파철등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돈을 주고 사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살 방법이 없는 가난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학업 중도탈락의 주요 원인이기도하다. 각 급 학교에서는 겨울에 내야하는

주제	영역	주제내용	행사과 방법	지관수단	소요 시간	그림	활동
	1	해방사상교양과 도덕교양	지주놈들의 착취적본성을 알도록 교양	교양	30		《옥쟁이 지주놈》에 대한 생동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상도덕교양활동을 기본적으로 해결함)
	2	우리말교육	남들을 해를 끼치는 지주놈에 대한 이야기 읽하기	말하기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은 방에서 뽕나무를 베어와서 지주놈을 쫓아내고 지주놈을 나무그늘에 앉아 비단옷을 입고 부자들끼리 그림자 놀이를 하는 그림</li> <li>• 겨울에 지렁이를 짓고 삼구치를 먹고와서 뽕나무를 베어와서 뽕나무를 베어와서 그림자 놀이를 하는 그림</li> <li>• 남일을 주지 않겠다고 뽕나무를 베는 농민</li> </ul>	자연스럽게 그림 활동 이야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지주놈을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알게하고 하면서 우리 말 교육의 과업을 해결함
	3	지능교육	농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기	대화하기	20		농민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기
	4	정서교양	《지주놈은 나쁜놈》노래에 맞추어 활동	활동	30		《집고 더운 지주놈》에 대한 노래듣기(의 노래) 맞추어 활동하기(를 하면서 계급적농민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를 해결하여 정서교양과 사상도덕교양을 해결함)
	5	건강 및 용인면	-	-	-		

표 , 김지수, “김정은시대 북한 유치원증오교육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9, p69

난방비와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용 또한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이는 교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이들에게 상납받는 물품들이 학교운영과 교사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교구의 구입역시 돈 있는 학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하는 현실로 인해 북한의 교사들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편애가 일상화되었다. 이와 관련된 북한 유치원교사출신 탈북민의 인터뷰는 북한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유치원 교양원출신 탈북민:** 내가 살기 위해서 교양원을 해야 되고 뭔가 또 부속을 지원해라 이걸 하려면 어느 부모한테 잘 보이려면 그 애를 얼마큼 이빠해야 되겠구나(생각하죠). 아침에 올 때 개를 한번 더 안아줘야겠구나. 앞에다 세

4 정영순 외, pp18-39

5 김병연, p385

6 마성은,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우리어문연구 48집, (서울: 우리어문학회) 2014, pp 305-311

7 엄인영, “북한 국어 교과서 계급주의 교양교육의 ‘원수’ 의식화 교육 내용분석,” 국어교육학연구, 55집 1호, (서울: 국어교육학회) 2020, pp. 122-128.



# 북한의 다음 세대

신 효 숙 (남북하나재단)

## 1. 북한 청소년의 다양한 모습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을 접한다. 경직되고 바른 자세로 교실에 모여 공부하거나 김일성 수령님 동상에 꽃을 헌화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을 접한다. 다른 한편 놀이동산에서 놀이 기구를 타거나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하느라 주변에 아랑곳없이 몰두해 있는 모습을 종종 접하고 있다.

장마당을 전전하며 떨어진 음식을 주어먹는 꽃제비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교육교구가 잘 갖추어진 유치원과 학교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들판에 마르고 허약해 보이는 어린이가 처량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야외 나들이를 하고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과연 어떤 모습이 청소년들의 실제일까.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면 다른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없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20여년이 훨씬 지났다. 김정일 사후,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통치시기를 거치면서 정치체제 및 사회생활 전반에 이전 시기와 다른 변화가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을 보낸 청소년들은 확실히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 2.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북한 교육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정치사상교육을 들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교육은 30대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첫 해에 과연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 변화가 있을까 주목하였다. 정치도 경제 문제도 아니었다. 교육제도 개편

워줘야겠구나. 잠 잘 때 따뜻한 데 눕혀줘야겠구나. 눕히는 것도 서열이 있어요. 쪽 보면.<sup>8</sup>

유치원에서 장난감 하나를 모든 아이들이 돌려쓰는 경우는 다반사이며 초중등과정에서는 내용위주의 교수안으로부터 활동위주의 교수안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재가 확충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들, 교과서의 내용은 실험 탐구를 전제로 변경되었으나 기자재가 구비되지 않아 오히려 폐기된 과거의 교과서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자료 중 2013 - 2018년에 북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에 과학실은 있으나 실험의 용도로 활용되기보다는 교과서를 가지고 과학실로 이동해서 읽는 수준의 수업진행이 많으며, 컴퓨터 수업의 경우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기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 컴퓨터에 관해 선생님이 불러주는 내용을 종이노트에 받아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맺음말

북한의 어린이 교육교양법에 따르면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

게 키우는 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교육교양법 제22조). 북한 정권은 핵개발과 경제제재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교육에만큼은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다. 2013년 교육개혁을 통해 있었던 교과서에서 우상화의 감소,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현장-자율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북한교육에 희망적인 일이다. 자녀교육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부모들의 교육열 또한 북한사회의 미래와 남북통일을 위해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의 질 저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북한의 다음세대 지적, 정서적 발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사회 체제자체와 그 역사가 내포한 모순에 기인하는 김씨일가 우상화와 역사왜곡, 남한 미국에 대한 증오교육이다. 이는 장차 남북이 하나 되는데 매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북한의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북한의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이유이다. 🐟

8 김지수, “김정은시대 북한 유치중등교육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9, p78.



〈북한의 과학교육 선전물〉

안을 발표하였다. 청소년들의 교육을 중시하면서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취학 전 교육 1년과 소학교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중학교 6년을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구분하여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을 통해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사상교육을 중시하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제시해 보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교육도 중요시 하고 있다.

정치사상교육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는 정규학교의 교과목 편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학교는 물론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는 김일성 우상화 교과목이 매주 편성되어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의 어린 시절이나 혁명 활동을 학습할 뿐만 아

니라 사회주의 도덕을 배우고 있다. 지도자와 당에 충성을 다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은 정규 교과목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의 생활총화와 조직생활을 들 수 있다. 학생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은 조직에 소속되어 집단의식을 형성하고 정치사상교육을 받는다. 조직에서는 매주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생활총화를 실시한다.

다른 한편 북한은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실리주의 교육을 표방하며 과학기술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소학교에서부터 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도 정규교과로 편성하여 가르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하며 다매체교육, 정보화교육, 원격교육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 3. 청소년이 습득하는 학교에서의 또 다른 경험과 가치관

공식적 학교교육과 교육경험으로 보면 청소년은 지도자와 당에 충직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양성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들은 과연 이러한 당국의 교육목표를 내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을까.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공식 교육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습득하는 비공식 교육, 잠재적 교육을 통해 가치관과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수업에서 또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학습되고 내면화되는 지식과 가치관이 적지 않다.

이는 교사와 학생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구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학교는 권위주의, 경제력의 작동, 간부와 비간부의 서열화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사회임을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선생님, 친구들과 관계 맺는 학교생활에서 공식적 지식, 가치와 다르게 가정의 경제력이 반영된 위계적인 관계경험을 하게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 내야 하는 세 부담이 적지 않다. “토끼 가죽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걸 안 가져오면 수업 빼먹고 돌려보내거든요. 집에서 가져오라고. 가져오기 전에는 가방을 못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이, 폐철, 토끼가죽, 현금 등의 세 부담을 내지 못해 벌을 받거나 친구들과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심지어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세 부담을 잘 내거나 교사에

게 음식, 물품 등을 잘 제공하는 학생에게는 생산노동 활동에서 면제받고 학급 반장과 같은 간부가 되고 소년단에 입단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차별적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경제가 안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여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때쯤에 아예 공부를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세대주가 농장이니까. 언니나 저나 학교를 졸업하면 그쪽으로 밖에 갈 수 없다. 이 애길 하시는데. 그때 뭔가. 아. 이 사회가. 제가 선택권이 없었던 거 같아요.” 청소년 중에는 학교성적이 뛰어나서 수재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이 변변치 않아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체념하고 순응한다.<sup>1</sup>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직장을 배치해 준다. 직장의 평균 월급은 4000-6000원으로 대부분 비슷하다. 직장에서 주는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 없고, 월급 외에 별도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명예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돈을 버는 부업 등이 가능한 직장, 외화벌이 직장 등을 선호한다. 직장 배치 전에 원하는

1 신효숙, “북한이탈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가치관 형성: 북한 학교 교육 경험 및 중국-남한으로 이주와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제17권 2호, 한국통일교육학회, 2020.



직장에 배치받기 위한 로비가 벌어진다. 부모가 당원이거나 경제력이 되는 가정에서는 다양한 로비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배치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출신성분이 안 좋거나 뇌물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국가의 직장배치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 4. 청소년들의 교육 실태와 교육의 양극화

2000년대 이후 학교교육의 양극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북한 사회의 시장화가 이미 학교 교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간부와 비간부,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 등으로 서열화가 조장되고 있다. 학생들은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배우고 받아들이지만 학교 내외의 비공식적 관계 경험 속에서 이와 배치되는 생각과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난 이후에 사회의 선발과 배치에 있어서 당성과 출신성분에 가정의 경제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개인의 능력보다 당성, 그리고 부모의 출신성분·직업·경제력 등의 요인이 상급학교 진학과 직장 배치에 주요 요인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이나 직장 배치가 국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르기보다 가정의 경제력과 사회적 인맥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경험한다.

교육의 양극화와 그 실태를 2020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sup>2</sup> 탈북 직전 1년 시점에 학교 교육의 실태를 묻는 5점 만점 질문에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3.86, △학교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었다 2.53, △학교에서 세 부담(돈)을 냈다 4.21로 응답하였다. 교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교원은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 3.24, △교원은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다 3.37, △교원은 학생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2.31, △교원은 학생들에게 뇌물을 받는다 4.12로 응답하였다.

영재학교에 해당하는 제1중학교의 진학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1순위 학교성적, 2,3순위는 부모의 경제력으로 응답하였다. 대학교 진학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1순위 부모의 경제력, 2순위 출신성분, 3순위 학교 성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에서 사교육은 공식적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사교육이 확산되고 전문 과외교사도 생겨났다. 개인강습을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33.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4년, 20.4%). 과거에는 음악, 무용 등 예체능 과목을 중심으로 개인강습이 이루어졌다면 점차 외국어, 컴퓨터, 기본 교과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본 조사 대상자는 지역적으로 함경북도, 양강도 출신 탈북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조사 결과로서

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2020.10.29. 화상회의 자료집.



〈북한 평양창전소학교 학생들 수업 모습〉

평양 등 대도시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면 사교육 비율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내구재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휴대전화 58.7%, 컴퓨터 45%로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컴퓨터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49.1%(‘19년, 44.0%)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컴퓨터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 동기에 대한 질문은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탈북 결심을 묻는 질문에 30-50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때문이라고 가장 많은 응답을 했지만, 10대와 20대는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 5. 북한의 다음 세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남한의 청소년들은 밀레니엄(Millennials), 모바일(Mobile) 세대라는 M 세대,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기기에 익숙한 Z 세대로 특징된

다. 최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세대로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로 일컬어지기도 한다.<sup>3</sup> 남한사회의 변동과 함께 청소년들의 의식과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사회는 어떤가. 북한의 다음 세대도 세기적인 변화 속에서 의식과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청소년들은 국가의 통치원리와 교육 목표를 그대로 수용한 정형화된 인간이 아니다. 경제난과 시장화를 겪으면서 국가, 즉 지도자와 당이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사상교육과 세뇌교육을 받아왔다. 북한의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가라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 당을 결사옹위하는 애국주의 정신은 여전히 지배적 가치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가족주의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에서 개인주의, 가족 중심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국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자신,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존과

3 최재봉, 『포노 사피엔스』, 샘앤파커스, 2019.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이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 체계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생활에 익숙한 ‘포노 사피엔스 세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포노 사피엔스의 9가지 코드는 메타인지, 이매지네이션, 휴머니티, 다양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복탄력성, 실력, 팬덤, 진정성이다.

# 북한의 다음세대, 탈북청소년들도 그들 중 하나이다.

임창호 (장대현학교 교장, 전 고신대부총장)

## 1. 다음세대는 누구인가?

다음세대를 영어로 직역하면 Next Generation이라고 한다. 축소하면 N세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음세대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다양해서, 본 고에서는 사회학적, 선교학적, 디아스포라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다음세대를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다음세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먼저, 사회학적으로는 랭커스터와 스틸만의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을 들 수가 있겠다. 이들은 “천년의 끝에 태어나 새천년을 이끌어갈 세대”로 분석하면서, “향후 20년간 기업과 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인류”라고 칭한다. 즉 1990년 이후 출생한 세대를 의미한다. 이 책 저자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김도훈, 2010. 149-150).

첫째는 부모라는 요소이다. 밀레니얼 세대


는 부모의 절대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대학을 준비시키고,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이들을 놓아주지 않고 관여한다. 결혼을 해도 관여한다. 두 번째 요소는 권능감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칭찬과 격려 속에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성취감이 강하며 능력이 많은 세대이다. 셋째는, 의미의 추구이다. 그들은 단순히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중요시하고 이를 성취하고 싶어하는 세대이다. 넷째는, 삶에 높은 성취와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 다섯째는, 빠른 속도를 즐기는 컴퓨터 세대이며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세대이다. 여섯째는, 모든 것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하는 세대이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정치 종교, 대중문화, 인생에 대해 글을 쓰고 채팅하고, 링크를 주고받거나 메신저로 대화한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은 삶의 전부가 되었을 정도다. 이들을 TGIF의 변형된 의미인 T(Twitter). G(Google).

안전, 미래는 자신 및 가족의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의 변화가 이를 시사한다. 탈북 동기가 기존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등으로 개인 및 가족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남북한 청소년들 모두 진로와 취업이 주요 관심사이자 스트레스이다. 남한과 같은 대입 및 취업 스트레스 정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북한 청소년들도 진학과 진로에 대해 고민한다. 국가가 직장을 배치해 주지만 자신의 진로,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염려하며 결정하게 된다. 학교생활에서나 대학입시에서나 직장배치에서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했다. 즉 북한은 자본주의, 물질주의 등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미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경제 중심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 청소년들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외부세계의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다양한 정보 매체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 손전화, 터치폰으로 통용되는 휴대전화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휴대전화 이용률이 50%를 넘어섰고, 이를 이용한 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액 결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최고 선물이 휴대전화라고 한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문자를 주

고받고, 검색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진 찍기,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검색’과 인트라넷을 통해 ‘스스로 찾아 학습하기’, ‘검색해서 알아내기’라는 새로운 영역의 학습방식을 터득하고 외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 상류층, 엘리트 청소년 일수록 컴퓨터와 디지털의 접근과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는 세기적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고, 디지털 기반의 포노 사피엔스 시대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북한 체제도 다음 세대인 ‘포노’들의 코드를 읽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사회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의 다음 세대가 세계 문명의 대전환기에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구상해 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2020.10.29. 화상회의 자료집.

신효숙, “북한이탈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가치관 형성: 북한 학교 교육 경험 및 중국-남한으로 이주와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제17권 2호, 한국통일교육학회, 2020, pp32-65.

최재봉, 『포노 사피엔스』, 샘애플커스, 2019.



I(I-phone). F(Facebook)로 부르기도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협력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표현함으로 협력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세대이다. 공감대와 합의를 중요시한다는 말이다.

사회인류학자인 만하임도 세대로 분류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서 역사적 문화적 경험 공유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인류 최초 밀레네움 전환과 디지털시대를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면서 성장한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30세까지가 다음세대이다. 임흥택의 90년생을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한 대표적 화제작 “90년생이 온다”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2030 다음세대론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 선교학적으로는 루이스 부쉬박사의 4/14 윈도우 이론을 들 수 있겠다. 잘 아는데로 부쉬박사는 10/40 윈도우 미전도종족 이론의 창시자이다. 10/40란, 지구를 직사각형으로 펼쳐 보았을 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북위 10도~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창 지역은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부쉬박사는 이 지역 대부분 국가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10/40지역에 우선적으로 선교전략을 펼쳐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용어는 1990년에 만들어졌다.

4/14 윈도우이론은 10/40윈도우 이론이 제창된 지 20여년이 지난 2009년, 뉴욕프라미스교회에서 65개국 350명의 목사들이 모인 앞에서 발표한 새로운 선교전략이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교회에서 주일학교 연령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4살부터 14세까지가 이제는 교육대상이 아니라 선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위기감 가운데서 나온 이론이다.

이 연령층이 주목 받는 이유는 첫째,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인 크리스천들의 80%가 4~1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바나리서치). 둘째, 복음의 전달력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부쉬의 이론에 의하면 4세부터 14세까지가 다음세대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는 말은 본래 2천 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온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최근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족들을 의미하는 이민자 용어로

도 사용한다. 즉,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도 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를 막론하고 이민자들의 이민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는 자녀교육이다. 부모들은 한국에서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살다가 미국 혹은 타국으로 간 사람들로서, 이민국가에 가서도 한국적 사고방식과 한국문화를 즐기면서 산다.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고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즐긴다. 그런 반면, 자녀들은 거주국에서 현지어로 기초교육을 받고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성장한다. 집에서는 부모들과 함께 한국적 사고방식과 문화로 살아가고 있지만, 현지 학교교육을 받는 자녀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한국적 사고방식의 부모와 문화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역문화와, 집에서 부모가 요구하는 문화적 방식 혹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민갔다고 하면서도, 부모들은 막상 자녀들에게 한국적 사고방식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요한다. 그러나 자녀들은 현지인 친구들과 선생들로부터 배운 지역문화와 가치관에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문화충돌과 가정불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부모와 자녀간 원만한 소통으로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누리는 예도 있으나,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말이 세대

갈등이라는 말이다.

이민사회에서는 통상 1세, 1.5세, 2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세는 고등학생 이상이 되어 이민간 자들로서 부모세대와 동 세대이다. 1.5세는 중학생 나이에 부모따라 이민간 자녀를 말하며, 한국어와 지역언어가 가능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한국적 또한 지역적 문화적응이 가능한 세대이다. 2세는 이민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언어를 배우기 이전인 세 살 전에 이민간 자녀를 일컫는다.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세대는 1.5세 이하, 즉 중학생까지의 나이를 중요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학적으로 보나, 선교학적으로 보나,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음세대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시기의 나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세대는 아직 사회의 잠재적인 세대인 30대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다.

## 2. 북한의 다음세대들은 누구인가?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서는 공적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혁명1세대는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는 1950~1960년대 전쟁 및 전후복구와 천리마 운동세대, 3세대는 1970~1980년대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 4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세대로 구분한다(정창현, 2007.572).

이들은 고난의 행군기에 유아기와 소년기를 지낸 연령대, 즉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무렵 태어나 경제난 상황 속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소학교에 입학한 연령집단부터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나 중학교 학령기 때 고난의 행군을 맞은 연령집단까지를 포괄한다. 이들을 통상 장마당세대라고도 부른다. 국제적으로 밀레니얼세대로 분류되는 세대가 북한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면서 자라난 4세대, 장마당세대인 셈이다.

장마당세대들은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다. 김일성의 죽음(1994), 김정일의 죽음(2011), 장마당을 통해서 밀려들어오는 외부세계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CD, USB를 통한 자유세계의 영화, 음악, 뉴스 등) 접촉, 탈북한 가족들로부터 들려오는 외부 자유세계와의 연결 등이 지금까지의 세대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장마당 세대는 기존 세대와 다른 뚜렷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즉, 이전 세대가 국가로부터 배급과 의무 교육을 받는데 비해, 장마당 세대는 이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이전 세대보다 약하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2015년에

장마당 세대는 이념보다는 돈벌이에 관심이 많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부모 세대에 비해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2017년에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자유(LINK) 단체가 20대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 붕괴된 북한의 배급 체제가 장마당 세대를 자립의 자본주의 인간형으로 개조했다”고 분석했다. 또 장마당 세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데 익숙한 용감한 세대”라고 규정했다. 어떤 탈북자는 북한 젊은이들은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에 충성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25)가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도자에 대한 무관심이 퍼지고 있으며, 충성심도 없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체제가 인민들을 먹여살린다면 손뼉을 치겠지만, 무엇 하나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홍영식, 2018.).

고난의 행군시기에 생겨난 고아들인 꽃제비도 그들의 아픈 경험이다. 꽃제비들은 부모의 죽음이나 친척의 버림, 국가의 무관심을 통해 양산된 사람들이고, 같은 세대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일반 청소년들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 세대는 이런 빈곤의 긴장을 안고 사

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거리에 방치되거나 버려진 아이들은 커서 계속 거리를 배회하는 거친 생활이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정규 노동으로부터도 지속적으로 소외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전 세대와 다르게 이들 세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또래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양산되는 현실을 경험하며 사는 세대라는 특징을 갖는다(조정아 외, 2013.45-46).

이들이 지금 30대를 전후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다. 국가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어린 시절에 식량부족과 굶주림, 부모와 형제 친척의 아사를 경험한 깊은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살아오고 있는 세대들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평양과 도내 출신성분이 좋은 자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장마당세대들이 제대로 된 기본교육(초중등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먹거리가 없었던 시기에 교육현장도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 3. 통일한국 북한의 다음세대로서의 탈북 청소년들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보면, 앞으로 통일이 되면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아마 내가 만나지 않은 다른 탈

북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매우 가슴이 무거워지는 책임감과 뭉클해짐을 느껴 본다. 이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지내는 동안 양질의 좋은 교육과 환경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흔히들 탈북자를 미리 온 통일이라고 한다. 통일의 마중물이라고도 한다. 매우 아름답고 바람직한 좋은 용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들을 대할 때 통일의 마중물로, 미리 온 통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별개인 것 같다.

탈북청소년들도 역시 북한의 다음세대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장마당세대들도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세 살 이전에 부모와 함께 입국한 2세들도 있고, 중학생 이전에 입국한 1.5세들도 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조국이라고는 하지만 외국이나 다름없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같은 것보다도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도 적지 않은 사회이다. 자립하여 씩씩하게 한국 주류사회로 들어가기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 사회이다. 그래서 이들은 훗날 통일이 되면, 남한에서 살기보다 통일된 북한 고향으로 돌아가 친척과 부모들이 있는 곳에서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싶은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들에게도 북한의 다음세대와 같은 동일한 과제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와 교회들은 다음세대에 대





〈영호남지역 최초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부산장대현학교 (2014년 개교)〉

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드높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필자는 여기에 북한 다음세대 중 하나인 탈북청소년들에게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북한에 있는 다음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북한다음세대인 탈북청소년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일반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탈북학교에 다니고 있는 탈북청소년들도 수백 명에 이르며, 이들을 위해 세워진 탈북학교도 10여개에 달한다. 탈북학교에 찾아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문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반기며 동역자로 맞이해 줄 것이다.

2020년 9월 현재 통계로 보면 20-29세까지의 탈북청소년들은 수는 9,567명이다. 10-19세까지는 3,800 명이다. 0-9세까지는 1,297 명이다. 모두 14,664명이다. 한국에 입

국한 탈북민 전체 33,718 명 가운데 43%가 북한 다음세대들이다. 이들을 한국의 다음세대와 함께, 통일한국의 다음세대 자원으로 여겨 잘 양육하고 교육한다면, 통일한국 북한에서 43%는 이들이 감당하고 책임지지 않을까? 다음세대는 분석하고 이슈화하는 일보다, 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들과 대화하면서 양육하는 일에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라틴어에 이런 격언이 있다. “ACTA NON VERBA(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

#### 참고문헌

김도훈(2010), 다음세대 신학. 장신논단. 제39집. 장로회신학대학교. 144-171

정창현(2007),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역음, 북한의 당·국가 기구 군대. 서울 : 한울아카데미.

조정아 외(2013),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통일연구원

홍영식(2018), 요즘 북한젊은이들. 한국경제 천자칼럼(2018.11.19)

## 차갑게 얼었던 나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였던 그 찬양(상)

편집부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국가인 북한, 희진(가명) 자매는 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녀의 할머니는 지하 교인이었다. 할머니는 주일마다 어린 희진에게 작은 방 문을 잠가달라고 부탁하고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 자기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다. 희진 자매는 혹시나 실수로라도 할머니가 신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희진 자매를 포함한 온 가족이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희진 자매는 지금도 그렇게 숨어서 예배하고 있을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 후원을 당부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희진 자매를 만나 북한에서의 생활과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을 2화에 걸쳐 정리하여 기재한다. (편집자 주)

####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고난의 행군’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배고프고 가난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굶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고 숙제를 해오는 학생들도 몇 없었습니다. 숙제는 커녕 가게를 돕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했고 학교를 가는 것은 자연스레 뒷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콩나물을 길러서 시장에 파시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콩나물 뿌리를 고아서 국을 끓여먹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려운 시절이었

습니다. 며칠에 한 번 꼴로 옆집에서 시체들이 실려 나갔습니다. 굶어 죽거나 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었어도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며칠씩 놔뒀을 때도 있었고 한 집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받는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들은 소위 ‘혁명

적 인물'이라고 일컬으며 어려서부터 이들의 업적에 대해 구체적이며 심층적으로 배웁니다. 세뇌에 가깝게 말이죠. 오히려 북한 사람들에게 세계사와 같은 과목은 그다지 중요한 과목이 아니며 때로는 수업도 않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아주 상세하게 배우고 또 학생들은 반드시 이 과목들에 대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 교육은 일상생활에서도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가령, 매년 태양절(김일성 출생을 기념하는 북한의 기념일)이 되면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우리는 그 때마다 김일성장군에게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매사에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감사를 표하라고 가르칩니다. 김일성은 독립운동을 통해 일본의 치하에서 북조선을 구원해낸 영웅이자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김일성이 나라를 제국주의에서부터 지켜냈다면, 김정일은 그 나라를 발전시켜 북한 사람들이 배우고, 자라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했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의 근간입니다.

**할머니가 지하교인이셨다고 하셨는데,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머니는 중국에 계셨을 때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복음을 접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그러나 북한에 돌아온 이후에는 삼촌과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온 가족이 처형당할까 봐 할머니가 주님의 '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했지요.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주 일요일마다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을 하셨습니다.

**북한 땅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할머니께서는 중국에서 신앙을 갖게 되신 이후에 복송되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셨고, 감옥에서 살아남아 몇 개월 후에 출소하셨습니다. 만약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증거가 잡혔다면 할머니를 포함한 온 가족이 처형을 당해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신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일반 감옥에 가지 않고 해당 인물의 가족 전체가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가족 말고 본인만 잡혀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앙을 진짜 가졌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기독교인들과 접촉만 했을 경우에는 본인만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성경이 발견되었다거나 하는 명확한 신앙의 증거가 있을 경우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정

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과거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던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끌려갔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곳이었습니

**자매님께서 과거 정치범 수용소가 있던 지역의 모습은 어땠나요?**

북한에서 제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과거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들은 주로 깊은 산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10년, 20년 같이 형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수용소에서 살다가, 죽으면 '죽나보다' 합니다. 그곳에서 온 가족과 자손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라면 겁에 질리고 공포스러워 합니다.

우연히 발길이 닿아 예전에 정치범 수용소로 쓰여졌던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운영은 한참 전에 끝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곳에 수용되었던 범죄자들은 내부에서 이미 생을 마감한 지 오래였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아



마 몇 년 전 당에서 대사면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운이 좋게 범죄자의 신분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수용소에 갇혔던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요주인물로 낙인찍혀 사회에 진출할 수도, 당 내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물건을 팔기 위해 그 버려진 지역에 가게 되었고, 그 곳 사람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사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은 참 무덤덤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덤덤하게 말하는 가운데 참 거칠기도 했고 순간 순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 지역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원한과 원망이 아주 크고, 사람들은 각종 범죄와 살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용소가 폐지되었기에 자유로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 곳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직도



봄에 눈이 녹으면 겨우내 얼었던 시체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깥사람들이 그 곳으로 잘 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을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길가와 산을 돌아다니며 땅을 파고 흙을 캐야했습니다. 혹시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탈출을 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눈에 띄면 현장에서 사형되었습니다.

그 곳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는 개같이 죽었어.”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저에게 “당신네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를거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아도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참혹하고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다시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머니께서 주일마다 몰래 예배를 드리셨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할머니는 문을 잠그시고는 30분이 조금 넘도록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찬양을



부르시면 제가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몇 곡 부른 뒤에는 당시 어린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돌아보면 아마도 사도신경을 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가족을 위한 기도를 주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나 삼촌이 아팠을 때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있으면서 찬양을 따라부르기도 했고, 기도 시간에는 옆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무렵,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실 때 따라서 “아멘” 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지금도 할머니가 찬양을 부를 때의 그 표정이 생각나는데,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듯 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금지된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시던 그 모습은 그

저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르셨던 찬양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곡이 있나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찬양을 짧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찬송가 중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곡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곡은 제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처음 새벽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영영 울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희진자매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다 마치지 못하고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죠. 제가 그렇게까지 울 줄은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감사하면서 살았거든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좋은 분들을 만

나 안전하게 중국에 정착했어요. 그렇지만 마음 속에 응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지는 모르겠지만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교회에 가거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 속에 그 딱딱한 것들이 녹아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과 함께, 저희 할머니께서 삼촌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머니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저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 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로 기꺼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또 언제나 그분을 따를 수 있음이 참 기쁩니다. 여기 한국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분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삶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복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몰랐을 적에 주님은 저를 먼저 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축복 받은 자인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 +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유엔은 3월 23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 표결 절차도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도 빠졌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직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인도적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처음 담겼다.

인권이사회는 또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이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ㄱ

## + 북, 함남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450km 비행



장예진 기자 / 20210325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YN1

북한이 3월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6분경,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해 발사됐다. 합참은 “현재 우

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당국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

偉) 일본 총리는 기자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말했고, 미국 CNN방송은 미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2발이라고 전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원산에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최섉희 외무성 제1부상도 18일 ‘적대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대미담화를 내놓은 데 이어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ㄱ



## + 미중 충돌 속에 북중 정상 친서 교환... 한국 부담은 커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은 19일 알래스카 주에서 가진 이틀간의 협의를 마쳤으나 공동발표문 없이 종료되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홍콩 및 대만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중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반면 회담에 참석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의 주권을 지키는 결의를 알리지 말라고 전했다고 밝혀, 중국의 인권 탄압과 경제적 위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미-중의 주장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그러한 문제들은 '핵심적인 이익'이라면서 그 이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평행선만 그었다.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이익을 공유하는 점이 있다"고 말

해 접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역할에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조차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외교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관계 강화를 강조한 구두친서를 주고받았다. 북한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에 시진핑 주석 역시 구두 친서를 보내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 북 외무성 "말레이시아, 북 제재위반자 미국 인도 반발... 외교 관계단절"



〈구 말레이 북한 대사관〉

북한 외무성이 3월 19일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주민을 '불법 자금세탁' 관여 혐의로 미국에 넘겼다면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인도한 인물은 문철명(56)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문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해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했으며 2019년 5월 말레이시아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문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인도를 승인했고,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달 초 신병 인도 거부를 요청한 문씨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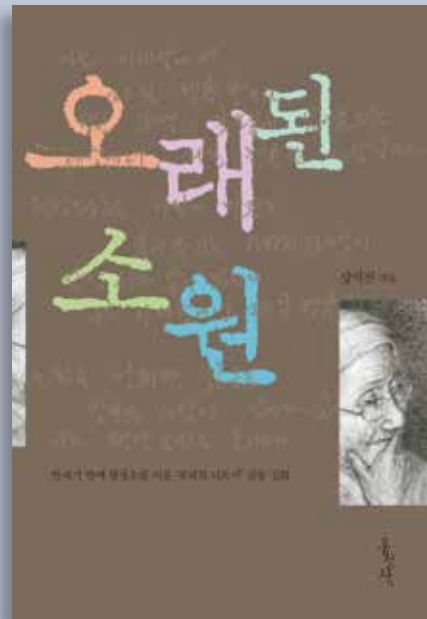
북한 측은 문씨를 다년간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인 대외무역 활동에 종사해온 일꾼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은 우리 공화국을 고

립 압살하려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적대시 책동과 말레이시아 당국의 친미 굴욕이 빚어낸 반공화국 음모 결탁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양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도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대사관 직원들에게 48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하고 평양에 있는 말레이시아대사관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단교 결정이 "비우호적이고 건설적이지 않으며 상호 존중 정신과 국제사회 구성원 간 우호 관계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지난 1973년에 수교해 가깝게 지냈으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한 뒤 양국은 상대국 대사를 맞추방했고 이후 평양주재 말레이시아대사관이 사실상 폐쇄됐다. 이후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2019년 10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참석한 당시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났으나 지난해 말레이시아 총리가 바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였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오래된 소원

저자: 강석진

출판사: 홍성사

발행일: 2015년 06월 23일

가격: 13,000원

2003년 7월, 압록강변의 어느 시장에 남루한 옷을 걸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쌀가게에 들어갔다. 그는 우연히 만난 조선족 집사의 도움으로 쌀을 무사히 살 수 있었고 이후로도 조선족 집사에게 도움을 받으며 한국인 선교사인 저자와도 가까워진다. 그 남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을 방문한 북한 사람이었는데, 중국에 온 목적은 중국을 통해 남한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 즉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다. 남편을 찾는 할머니의 이름은 정현숙, 해방후 북한사회의 혼란과 전

쟁 속에 남편과 헤어지고, 기근과 빈곤과 함께하는 박절한 인생을 살아온 이 할머니에게 저자는 나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나옴이는 일제강점기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나고 자랐다.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으므로 교회생활을 하며 당시로서는 선진문물을 접하며 자랐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배려로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피아노와 성악에 재능을 보였다. 이북 명문인 개성 호수돈여고에 수석으로 합격했음에도 가정형편으로 인해 진학에 어려움이 있

었으나 부모님의 헌신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잠시 일본유학을 거쳐 이화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수 많은 간증들, 그리고 부흥회 반주자로서 한경직 목사를 만났던 일, 나옴이를 아끼는 호수돈여고 은사 전선애 선생과 그의 남편 조만식 선생과의 일화 등의 이야기 등이 이 책의 전반부를 채우고 있다.

해방직전 조선 사회 전체가 전시체제를 지탱하느라 혼란스럽던 상황 나옴이는 부모님에 의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다. 남편은 지주가문의 장남으로 유능하고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다소 차가운 면이 있고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부부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러던 중 해방이 되었고 지주계층에 대한 공산당의 핍박이 심해짐에 따라 남편은 급하게 남쪽으로 피신하고 나옴이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식구들이 있는 신의주로 이주하게 된다.

당시 이북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져가며 나옴이는 주일성수를 할 수 없게 되고 음악인으로서 공산주의를 찬양해야만 하는 현실 앞에 고뇌하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고 자연스레 나옴이는 인민군 장교가 된다. 전쟁 중 신의주에 배치되었을 때 나옴이는 때로는 장교의 신분을 감추고 신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때로는 장교의 신분을 활용하여 성도들을 도우며 지냈다. 그러는 사이 전쟁이 끝나고 나옴이는 음악인으로서 잠시 안정적인 생활

을 하게 된다.

이후 남편도 없고 사회적 배경도 없던 그녀는 시댁의 월남사실과 과거 신앙경력이 문제가 되어 투옥과 오지추방을 겪으며 자녀들과 비참한 생활을 이어간다. 그녀의 나이 80대 중반에 이르러 그녀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남쪽의 가족들과 어떻게든 연결시켜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자를 만나게 되었다. 결국 이 책의 저자와 주변 많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한국의 가족들과 다시 연결되게 된다.

이 책의 장르를 굳이 나누자면 “전기적 실화 소설”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는 나옴이의 회상이 액자식 구성으로 1장과 3장 사이에 담겼고 1장은 저자가 나옴이를 만나게 된 배경, 3장은 깊은 사연을 지닌 나옴이의 민원해결 이야기가 담겼다. 2장의 액자에 담긴 나옴이의 회고는 여러 사정으로 북에 남을 수 밖에 없었던 한 그루터기 신자의 일대기이다. 지금 남한에는 북한이 공산화되기 이전까지의 선천과 신의주의 교회들, 나옴이가 졸업한 호수돈여학교와 같은 미션스쿨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당시의 사진들과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다. 이는 당시 월남한 성도들과 동문들이 남긴 자료와 증언들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한으로 넘어온 성도



들이 아닌 ‘당시 월남하지 않고 그곳에 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다. 가령 조선이 해방되고 만주지역의 많은 동포들이 귀국하던 시절 현재 요녕성 카이웬(开远)에서 목회를 하던 강태국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만주에 남을 수 밖에 없었던 동포들에게 교회지도자의 귀국소식은 기쁜소식이 아닌 슬픈 소식이었다. 이후로 문화대혁명의 핍박이 몰려왔을 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된 사람들은 바로 그나마 양떼를 두고 떠나지 않은 이름 없는 사역자들이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족 성도사회에서는 한국의 훌륭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강태국 목사보다 나이도 어리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당시 카이웬 교회를 이어받았고 이후로 문화대혁명을 겪어낸 김성하 목사가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당시 신의주에서 훌륭하고 존경받던 윤하영, 한경직 목사의 이야기 보다는 지도자가 월남한 후에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돌보다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의주 제1교회 서상권 장로님과 김순화 여전도사님의 이야기에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이 책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역시 호수돈여학교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믿음 좋은 새댁이 공산당을 피해 월남하여 별이는 성공기가 아닌, 그녀가 북에 남아서 받아야 했던 ‘마라’의 회고이기 때문일 것이다.


6. 25시기 월남한 작가이자 목사이기도 했던 박승일은 그의 자전적 단편소설 “할머니가 되었을 안황옥 여사”에서 공산치하 성도들이 겪은 6.25를 그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성도들 중에서도 공산당에 속하여 활동한 있었는데 성도들을 그들을 (당시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토마토, 수박, 사과 빨갱이로 구분했다고 한다. 토마토 빨갱이는 겉도 속도 다 같이 공산당 물이 흠뻑 든 골수 빨갱이를, 수박 빨갱이는 겉으로는 빨갱이가 아닌 척 하면서 속은 아주 새빨간 빨갱이를, 사과 빨갱이는 겉으로는 빨갛지만 속은 새하얀 빨갱이를 가리키켰다. 그의 소설의 내용 또한 양떼를 두고 떠날 수 없어 북조선에 남은 감리교 목사 가정과 목사님과 남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공산당이 되어 목사와 성도들을 은밀히 돌본 한 사과 빨갱이의 분투기를 그리고 있다. 인민군 장교로 복무했던 이 책의 주인공 나오미 역시 6.25 전쟁 시기 신의주의 성도들을 위한 사과 빨갱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전쟁 중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이자 인민군 장교로서 은밀히 교회를 돕고 있는 나오미의 존재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격변하는 북한의 역사 속에 그녀의 기독교 경력은 어떻게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고 나오미는 결국 투옥과 가족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는다. 이러한 나오미의 아픔은 당시 북한에 남은 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겪었을 아픔들이며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간증들이 그루터기 성도들과 함께 북한땅에 묻혀있을 것이다.

나오미의 중국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책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나오미와 아들이 돌아갈 북한의 냉혹한 현실을 생각 할 때, 이들이 아마도 영원히 다시 못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류도 이어갈 수 없는 헤어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도 이 결말을 해피엔딩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남북이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있어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북한 내부 다수 국민이 극빈과 구조적 부조리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이러한 류의 소설은 그 결말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분단과 북한상황의 슬픈 현실이다.

6.25 이후 북에 남은 그루터기 신자들에 관한 일화는 남한에 출판된 수많은 탈북민들의 간증과 회고록을 통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책으로 국군 정보장교 출신으로서 극동방송을 도왔던 김영국 씨가 1979년 본인이 모은 자료를 모아 출판한 “북한 종교말살의 진상”이 있으며, 역시 기존의 자료들과 탈북민들의 인터뷰를 종합한 “그루터기”라는 책이 작년에 출판 되었다. 필자가 알기로 그루터기 성도 당사자가 자신의 일대

기를 쓴 책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적이 없으며 누군가 그루터기 성도와 가정의 일대기를 듣고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도 2013년에 출간된 “믿음의 세대들”과 2015년에 출간된 본서 두 권 정도이다. 이 책의 저자는 나오미의 사망이 확실시 되어 그녀의 간증을 공개해도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되어서 비로소 이야기를 출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말했듯 그루터기 성도들의 많은 이야기들과 간증들이 그루터기 성도들과 함께 북한 땅에 묻혀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성도의 사망과 함께 그 이야기들도 사라져버리고 없겠지만(나오미가 저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랬을 것처럼), 아직까지 묻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북한 안과 밖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때가 되면 또 다른 나오미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해본다.

\*북한선교 관련하여 이 책과 같이 다른 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엮은 책들에는 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한경직 목사님 생전 목사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이어간 점, 이 책이 국내 대표적인 교계방송사와 출판사를 통해 방송과 책으로 제작된 점을 보아 필자가 이 책을 읽으며 생긴 소소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 굳이 확인하여 답을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1. 북한의 다음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교육이 개인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북한 공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으로부터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일가 우상화 그리고 남한, 미국에 대한 증오교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일성 가계 우상화를 위한 역사왜곡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한정권의 의도대로 북한의 다음세대가 세뇌된다면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주민의 사고와 가치관이 기형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교육과정의 우상화와 증오교육이 북한 다음세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2. 한국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10여개의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의 헌신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공간 확보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탈북민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는 은평구로 이전하는 일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 온 북한출신 다음세대를 위해, 그들을 돕는 대안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최근 말레이시아가 불법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 북한 무역일꾼을 미국 측에 압송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으며 말레이시아도 사실상 폐쇄상태이던 주 북한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이슈가된 북한의 해킹문제에 더해 과거 김정은 암살, 정부 관계자에 의한 불법 자금세탁, 외교가에서 북한의 불안정한 위치까지 북한의 어두운 현실이 국제 사회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모순이 개선되어 더 이상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4. 지난달 있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과 중국은 정상 간의 유대관계를 과시하는 구두친서를 교환했습니다. 과거 남북 분단에 있어 국제정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듯 남북관계의 진전, 통일에도 국제정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국제관계에는 이해 당사국들이 감지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국제정세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남북통일을 위하여 국제역학관계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5. 3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나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문제로 지탄받는 당사국들은 부인하지만, 인권문제에 있어 국제사

- 회의 압박이 압박을 받는 국가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한국정부와 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와 성도들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선도해나가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로 인해 북한선교현장의 사역이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경통제와 선교현장 일부지역 지역 간 이동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 멈춰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종식 후 펼쳐질 새로운 상황에 대해 기대와 염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 있는 사역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현장 사역자들이 잘 대비하도록 기도합니다.
7.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북한이 하루속히 한국 선교사님들을 석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범 수용소의 철폐, 그리고 오지로 추방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의 생존과 복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8. 라디오는 복음을 복녔을 향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대북 선교 방송국들과 방송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방송이 제작될 뿐 아니라 들으시는 청취자들이 안전한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깨닫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정치적 환경 변화가 선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1년 4월 1일



# World Watch List 2021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박해지도

크리스천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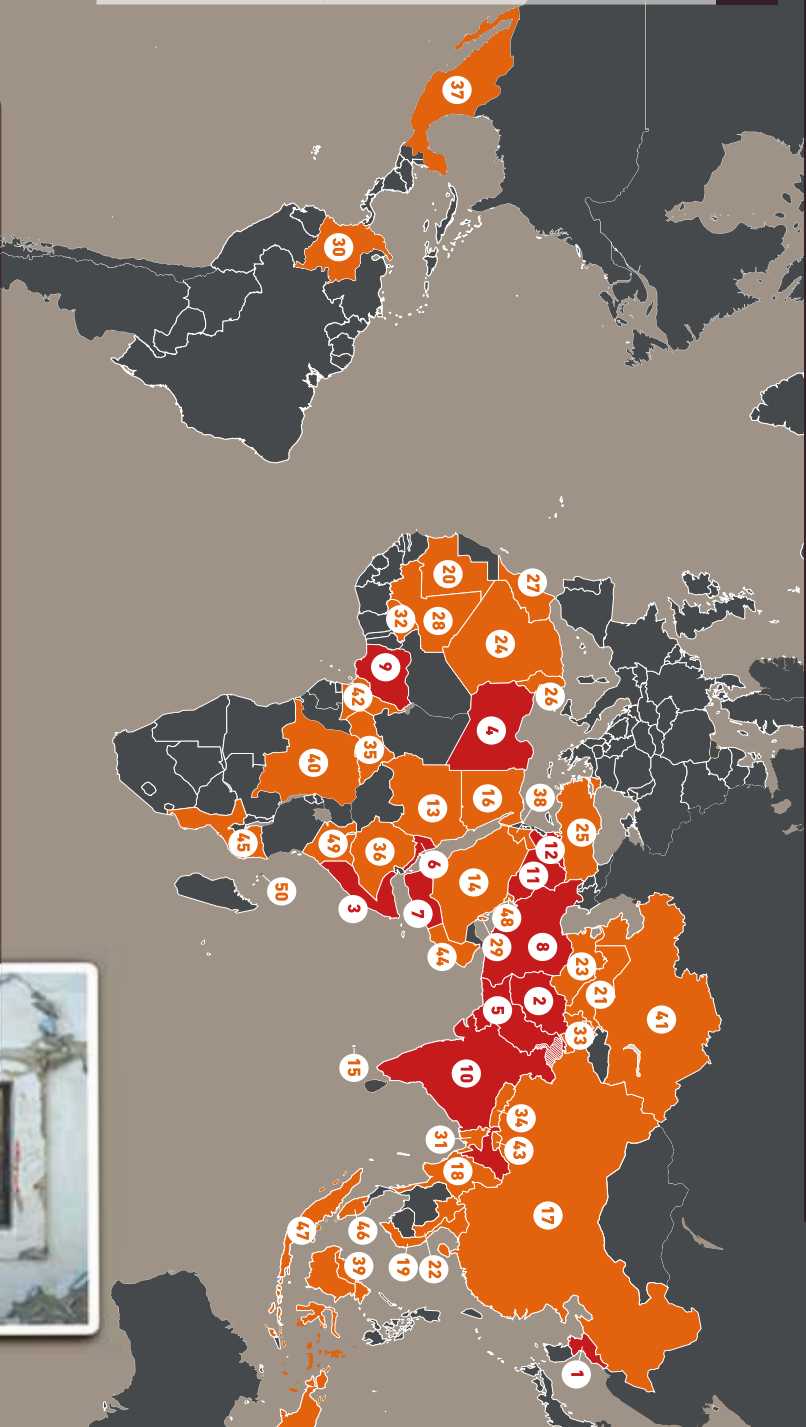
1	북한	26	튀니지
2	아프가니스탄	27	모로코
3	소말리아	28	말리
4	리비아	29	카타르
5	파키스탄	30	콜롬비아
6	에리트레아	31	방글라데시
7	예멘	32	부르키나파소
8	이란	33	타지키스탄
9	나이지리아	34	네팔
10	인도	3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1	이라크	36	에티오피아
12	시리아	37	멕시코
13	수단	38	오르단
14	사우디아라비아	39	부르나이
15	몰디브	40	중국
16	이집트	41	카자흐스탄
17	중국	42	키메룬
18	미얀마	43	부탄
19	베트남	44	오만
20	모리타니아	45	모잠비크
21	우즈베키스탄	46	말레이시아
22	러오스	47	인도네시아
23	투르크메니스탄	48	쿠웨이트
24	알제리	49	케냐
25	터키	50	코모로

##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천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 국가의 환경으로 부터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 점수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것은 폭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생활 기쁨과 영감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보장되는지 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감사드립니다. WWI 2021 데이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내 삶과 조국을 위해 내 마음과 꿈을 다시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정착하지 못 해나 지난 후, 더 중요하게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아홉은 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북한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탈북 다모데 황세

“너희도 함께 간히 것 같이 간히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13:3

